

## [도서관 서평쓰기 이벤트]

	학번 : 201402031	이름 : 노규리	
	도서명 : 기억 독서법	저자명: 기성준, 진가록, 미라클 독서모임	출판사: 북성크
<b>책의 줄거리</b>	<p>필자는 처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자신도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 전혀 내용이 기억이 안 났었다고 했다. 하지만 작가는 처음에는 책을 무작정 읽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고 그 책을 속독을 해보거나 천천히 읽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 필사를 하며 써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을 통해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독서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 서술하고 있다.</p>		
<b>본문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b>	<p>책의 내용 중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권위 있는 사이트의 베스트셀러만을 믿고 독서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베스트셀러인 책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은 책이지만 정작 나와는 맞지 않는 책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직접 다양한 책들을 읽고 접해 꼭 처음부터 책을 읽지 않아도 중간에 흥미가 떨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만 읽고 다른 책들을 찾아도 되고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 나와 정서가 맞는 책을 나의 힘으로 찾아 읽어 책과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말이었다.</p>		
<b>독서 후(後) 책을 읽고 난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b>	<p>이 책은 열자마자 프롤로그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았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다. '책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처럼 책은 잘 읽어지지 않았다. 학업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는 책을 읽다보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어쩌면 내가 책을 잘 읽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p> <p>책을 다 읽고 난 후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난 책을 전혀 안 읽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눈으로는 글씨를 읽는 것을 독서했다라고 하고 실제로도 책을 읽은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게 눈으로만 책을 읽었던 것이 사실 진정으로 책을 읽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었다. 결국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단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오감을 사용하며 읽었어야 제대로 책을 읽은 것이고 나의 기억에 남아 독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p> <p>또한 이 책을 쓴 작가는 책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독서가 주는 행복감을 말해 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책에서도 사람들에게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독서를 하며 자기 자신이 밥 먹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독서를 재미있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사람들과 독서 후 자신</p>		

의 생각 등을 나누면서 각 각 사람들마다 다른 독후감을 나눠보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독서 토론을 하며 나오는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타협이나 협상을 맺어가며 서로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단지 독서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법을 통해 나도 우선 다양한 책을 보며 나의 흥미를 이끄는 책을 제대로 읽어 보는 방법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방법으로 접근 해볼 것이다. 그 후 필자가 소개해주었던 마인드 맵, 좋았던 구절 필사하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독서를 해 볼 것이다. 이런 식의 독서를 통해 내가 효과를 본다면 나처럼 책을 읽고 싶어하지만 어디에서 흥미를 찾아야 하는지 방향하는 친구를 위해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내가 직접 독서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직접 이 책을 읽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세상에는 인생을 배우거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책은 많았지만 정작 그 책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는지 알려주는 책은 드물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좋은 책들을 어떻게 하면 더 깊게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이 책을 통해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여 책에 재미를 붙이고 더 나아가 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